

# 불펜이어, 팻딘을 울리지 마라



지난 10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회초 KIA 선발 팻딘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T 타이거즈 전망대

팻딘이 웃어야 '호랑이 군단'의 순위 싸움에도 불이 붙는다.

원정 첫 위닝 시리즈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가 홈 6연전에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넥센 히어로즈와 선두 질주 중인 두산 베어스가 안방을 찾는다.

KIA는 주중 넥센전 연패 끊기에 나서고 주말에는 3승 3패로 맞선 두산을 상대로 우위 점하기에 도전한다.

팻딘의 표정에 따라서 KIA의 순위 싸움의 양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유난히 승운이 따르지 않는 팻딘이다. 팻딘은 4월 22일 이후 5경기에서 승 없이 2패만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불펜 난조로 날린 승만 4승이다. 앞선 kt전에서도 팻딘은 덕아웃에서 자신의 시즌 3승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지난 23일 8-4로 앞선 9회, 김세현이 연속 안타로 흔들렸고 안치홍의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흐름을 내준 KIA는 8-9역전패를 당했다. 팀의 3연승과 팻딘의 3승도 사라졌다.

탄탄해진 선발진에 팻딘의 승수까지 더해진다며 KIA의 순위 싸움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양현종의 에이스 행보 속 헛터가 완투승으로 반전을 이뤘고, 한승혁도 지난주 2승을 수확하면서 선발진에 힘이 붙었다. 임기영의 매서움이 떨어지지만 윤석민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발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민은 지난 27일 고양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세 번째 등판을 하며, 복귀 채

최근 5경기 호투에도 2패 뿐... 불펜 난조에 4승 날려 KIA, 홈서 넥센·두산과 격돌... 윤석민 복귀 기대감

◆ 2018 KBO리그 팀순위 <28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51	33	0	18	0.647	0.0
2	SK	51	30	0	21	0.588	3.0
3	한화	51	29	0	22	0.569	4.0
4	KIA	51	26	0	25	0.510	7.0
5	LG	54	27	0	27	0.500	7.5
6	넥센	54	26	0	28	0.481	8.5
7	KT	52	24	0	28	0.462	9.5
8	롯데	50	23	0	27	0.460	9.5
9	삼성	53	23	0	30	0.434	11.0
10	NC	53	19	0	34	0.358	15.0

비를 끝냈다. 윤석민은 29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해 복귀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팻딘에게 29일 경기는 설욕전이다. KIA는 앞선 고척 원정에서 루정시리즈(1승 2패)를 기록했다. 양현종을 앞세워 2-1로 신승을 거뒀던 KIA는 한승혁과 팻딘이 넥센 타선에 못매를 맞으면서 2연패를 기록했다. 서건창, 박병호에 이어 이정후, 김하성까지 넥센의 '호랑이 사냥꾼'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었다 만큼 더 아쉬웠던 연패였다.

팻딘은 앞서 고척에서 마운드 대결을 했던 넥센 로저스와 장소만 바꿔 다시 만난다.

앞선 경기에서 팻딘은 6.1이닝 11피안타(2피홈런) 6탈삼진 7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로저스는 7이닝을 4피안타(1피홈런) 2볼넷 7탈삼진 2실점으로 막고 시즌 4승에 성공했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신음했던 넥센은 조상우·박동원이 성폭행 혐의로 제외

되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KIA는 시즌 첫 원정 위닝시리즈의 분위기를 이어 위기의 넥센을 공략해야 한다.

클러브의 안정감이 중요한 홈 6연전이다.

지난 23일 안치홍의 결정적인 실책을 더해 역전패를 기록했던 KIA는 24일 6개의 실책을 쏟아내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두산(25개)에 이어 최소 실책 2위 자리를 지켰던 KIA는 지난주 실책 연발 속에 넥센과 최소실책 공동 4위로 내려앉았다. 기록되지 않은 수비 실수도 잦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야구를 하고 있는 KIA에게는 더 수비 집중력이 필요하다.

주말 두산 3연전 선발 로테이션도 관심사다. 정상 로테이션으로는 양현종-한승혁-팻딘이 나서지만 한승혁의 두산 열세와 윤석민의 복귀가 변수다.

한승혁은 올 시즌 두 차례 두산과 만나 15.2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경기에서 소화한 이닝이 7.2이닝에 불과하다는 게 고민거리다. 윤석민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주말 3연전에서 선발 로테이션 조정 등 마운드 재정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홈 6연전에서 야수들의 기록 경신에 준비된다. 김주찬은 앞으로 세 경기에 더 출전하면 통산 30번째 1600경기 출장 선수가 된다. 정성훈은 통산 9번째 3100루타에 8개를 남겨두고 있다. 안치홍(-3)은 삼성 김상수(-4)와 통산 90번째 500득점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민지 LPGA 볼빅 챔피언십 우승 '생일 자축'

김인경 1타차 2위

호주교포 이민지가 자신의 생일에 생애 네 번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민지는 28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73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볼빅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엮어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이민지는 단독 2위 김인경(30)에 1타를 앞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16년 10월 블루베이 LPGA 대회 우승 이후 1년 7개월 만에 거둔 네 번째 우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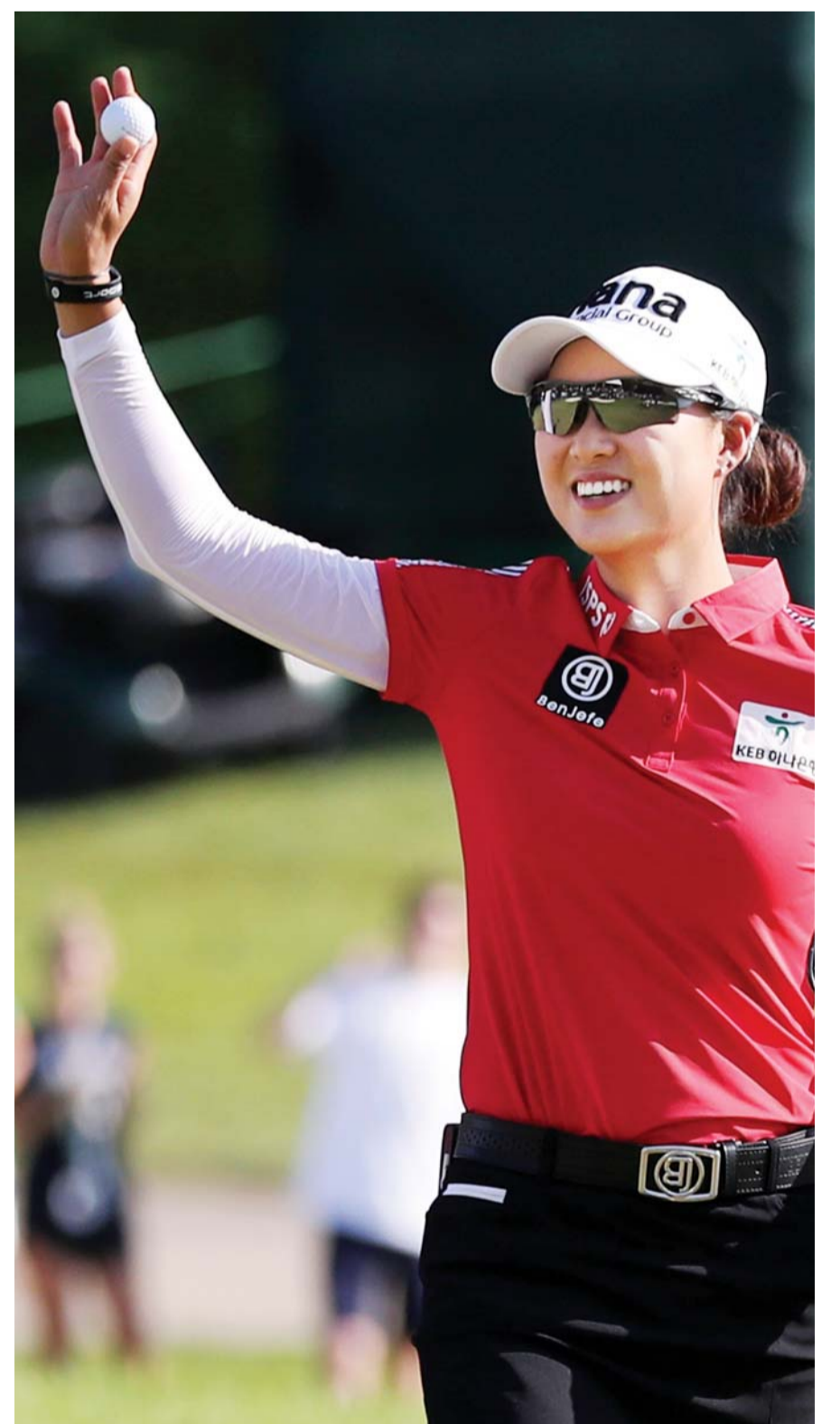
이날 스물두 번째 생일을 맞은 이민지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우승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1000만원)를 생일선물로 챙겼다.

2타 차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마쳤던 이민지는 이날도 2번, 4-5번 홀에서 버디를 낚으며 간격을 벌렸다. 그러나 김인경이 후반 10-11번 홀에서 연속 버디에 이어 13번 홀과 15번 홀에서도 징검다리 버디에 성공하며 순식간에 4타 차를 따라잡고 공동 선두가 됐다.

이민지는 그러나 공동 선두를 허용하자마자 14번 홀(파5) 버디로 밀려났고, 김인경은 15번 홀(파4)에서 스리퍼트 보기를 범했다.

이어 먼저 경기를 마친 김인경이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이민지는 17번 홀(파4)에서 파 퍼트를 놓치면서 한 홀을 남기고 둘은 다시 동타가 됐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이민지는 18번 홀(파5)에서 침착하게 버디에 성공하며 짜릿한 우승을 확정했다.

교포 2세인 이민지는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한 후 2014년 LPGA 투어 웰리파인스콜 최종전을 1위로 통과해 4년째 LPGA 투어 무대에서 뛰고 있다. 티칭 프로 출신인 어머니 이성민 씨가 함께 다니며 아침밥을 챙겨주곤 하는데, 이날도 푸짐한 생일상을 받고 경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교포 이민지가 28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빅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결승 가자

'8회 뒤집기쇼' 덕수고에 6-4 역전승... 준결승 진출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가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며 황금사자기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지난 2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덕수고와의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교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 경기에서 덕수고를 4-6으로 제압했다.

8회 4점을 뽑아내면서 연출한 극적인 뒤집기쇼였다.

이날 광주일고는 마운드의 제구 난조 속 덕수고에 끌려가는 모양새였다. 0-4로 뒤진 5회말 광주일고가 박준형의 몸에 맞는 볼과 정건석의 2루타로 1사 1·3루의 기회를 잡았다.

주자가 쌓이자 덕수고가 '비장의 무기' 장재영을 투입했다.

넥센 장정석 감독의 아들인 장재영은 150km를 넘는 공을 던지는 무서운 1학년. 광주일고는 장재영을 상대로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광주일고는 선두타자 박시원이 볼넷으로 걸려 나간 6회에도 전광진의 적시타로 1점을 보냈지만, 7회 공격에서는 삼자범

퇴로 몰려났다. 하지만 8회 광주일고가 발로 경기 흐름을 바꿨다.

박시원과 전광진의 연속 3루타로 3-4까지 추격한 광주일고는 대타 이현민의 스트라이크 아웃 상황에서 홈으로 쇄도한 전광진의 발로 4-4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정건석과 유장혁의 내야안타가 이어졌고 2사 1·2루에서 '캡틴' 김창평이 타석에 섰다.

공·수의 핵심인 김창평은 앞선 타석에서 두 차례 삼진으로 돌아서는 등 안타 없이 두 개의 볼넷만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안타가 필요했던 순간에 김창평의 방망이가 움직였다. 김창평이 좌측 선상으로 공을 보냈고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으면서 6-4가 됐다.

이날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나선 김창평은 9회말 마지막 수비에서는 변중섭의 안타성 타구를 낚아채면서 승리를 지켰다.

극적으로 준결승 무대를 밟은 광주일고는 오는 30일 오후 3시 경남고와 결승 티켓을 다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4경기 연속 무실점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6번째 홀드를 챙겼다.

오승환은 28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1.1이닝을 삼진 2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들어막았다.

팀이 4-3으로 앞선 7회말 2사에서 등판한 오승환은 라이스 호스킨스를 투수 땅볼로 잡아냈다. 8회에도 등판한 그는 마이클 프랑코를 루킹 삼진, 카를로스 산타나를 내야 뜬공, 에런 알테르를 헛스윙 삼진으로 가볍게 돌려세웠다.

투구 수는 15개에 불과했고, 그중 스트라이크는 10개였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다.

오승환은 5-3으로 팀이 추가점을 낸 9회, 마운드를 라이언 테페라에게 넘기고 임무를 완수했다. 토론토는 필라델피아에 5-3으로 승리했다.

2회초 1사 2·3루에서 타진 드브 트레이비스의 2루타로 먼저 2점을 얻은 토론토는 6회초 2사 만루에서 나온 드와이트 스미스의 2루타로 4-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6회말 한 점 차로 쫓긴 토론토는 오승환으로 상대 흐름을 끊은 뒤 9회초 타진 커티스 그랜더슨이 솔로 홈런으로 썩기를 박았다.

/연합뉴스